

지역 中企 3곳중 2곳 내년 신규채용

업체당 평균 5명...생산직 92% 부족

평균 근속 2.3년 불과 52%가 인력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생산직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업체 중 8곳은 적임자가 없어 제때 인력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중소 제조업 173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중소기업

인력채용 전망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51.7%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직종은 단순근로자 61.1%, 기능직 15.8%, 기술직 14.7% 등 생산직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무직과 연구직은 각각 2.1%, 6.3%로 나타났다.

특히 10~49인 이하 소기업(61.1%보다는 50인 이상 중기업(84.2%)이 단순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 인력의 제때 채용 가능 여부에 대해 80.1%가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채용이 쉽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인력 채용이 곤란한 사유(복수응답)로 적임자가 없거나(52.2%), 임금·복지후생 수준 불일치(35.1%), 중소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33.3%) 순이었다.

내년에 67.8%가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1개 업체당 평균 5명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계획 사유로는 자연감소 인원충원(58.3%), 현재인원의 절대적 부족(51.3%), 신규투자·생산규모 확대(28.7%) 등의 순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평균 3.3명 채용 희망), 청년인턴제도(평균 2.5명 채용 희망) 등을 활용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1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2.3년이며, 생산직 평균 연령은 38.7세, 사무직 평균 연령은 37.1세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롯데백화점 감동서비스 경진대회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희후)은 14일 오전 올 송년행사로 전직원 대상 서비스 이미지 구축을 위한 현장실천 문화조성과 현장서비스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감동서비스 경진대회'를 가졌다. 식품부 직원들이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주제로 뮤지컬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배추 이야기

더 이상 김장을 미룰 수 없어 결국 동네 아저씨들과 오밤중에 배추를 캐 부러부러 김장을 마쳤다.

숙아 낸 배추일 시래기는 이웃집 닭 모이로, 속 달한 작은 것들은 샐러드로, 혹은 씹이나 국 끓일 요령으로 남겨 두었다. 그뿐인가 끝나게 배추전 지저 또 다시 동네잔치를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무·배추가 참고에 가득하니 겨울 반찬거리가 부럽지 않고 배추 한가지로 오만가지 먹을 것들을 상상 중이다. 배추전 지저 그 안에 색색 야채와 버섯 채 썰어 볶아 넣고 돌돌 말아 썬 배추전 썬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곁들여 내면 괜찮으리.

야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기 뽕뽕 넣은 것들도 마련할 것이고 고구마나 뭐 그런 것들도 말아 보고 올려 보고 등 말이다. 피자 도우 대신 배추잎전을 간 것도 가능할 것이고 생배추 위에 두부와 명란젓 올려 고고 위에 고추 한 토막과 새싹 야채 조금 올려도 밥상이 화려해지리. 이도 저도 귀찮으면 육수 내어 후후룩 배추잎 뜬 배추국 한 그릇도 무난하리.

'지난번엔 무 한가지더니 이번엔 배추냐?' 하는 분들도 있겠다. 하지만 무와 배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개알 보다 작은 무씨가 이뤄 낸 일과 손가락만한 배추 모종이 만들어 낸 성과를 말이다. 그들은 천 배, 아니 만 배쯤 몸을 불렀고 그 안에 맛까지 담아냈다. 농사에 무식한 나로서는 기쁨이었고 무한 감동이었다. 그 것으로 담은 김치와 동치미인데 어찌 생각이 많지 않겠는가! 당분간 내 밥상은 그 것들을 위한 현사가 될 것이다. 기쁘게 감사하게 차릴 것이고 먹을 것이다. 예전에 쓴 일기 중에 내가 차리고 싶은 밥상에 대해 적은 글귀가 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고향을 먹고, 따뜻함을 먹고, 향수를 먹으니, 절로 살로 갈 것이다. 늘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내 글이 내 밥상보다 더 따뜻할 일 없다. 내 밥상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참 맛있다", "참 좋았

샐러드·쌈·국거리등 수십가지 활용 야채 볶아 배추전...육수 우려 배추국



"나" 나으면 좋겠고, 안 나와도 상관없다. 내가 정성들여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됐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육수는 보글보글 끓고 있다. 버섯 넣은 배추 국을 끓일 생각인데 시험기간인 딸에게 속편한 음식이 될 것이다. 속이 든든해진 딸아이는 배추꽃같은 웃음을 지을 것이다. 그 뿐인가 동치미 한 컵을 원 샷한 둘째의 웃음은 시원할 것이다.

자연에서 자라고 먹으니 건강하다. 그리고 보니 도시에서 살면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충족감이다. 사실 늘 연말이면 한 해 하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만 동동거렸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감사할 일이 많았던 것이다. 가족 모두 무탈한 것과 시골에서 살게 된 것 모두 말이다. 그리고 보니 배추만 몸 불리기를 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작은 것에 행복해지는 법을 깨달은 것을 보니 나 역시 자랐다 보다. 오늘의 배추 국엔 달콤한 내 행복도 스며들었다. 그래서 두고두고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줄 것이다.

▲리면처럼 끓여 먹는 배추 국
멸치 다시마 육수(그 외 홍합·표고·당근·대파를 넣으면 더 좋다)를 낸다. 육수가 끓으면 건더기를 건져내고 마늘, 집장파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소금, 후추, 참기름을 뿌려 살짝 짠 버섯, 배추와 대파, 고추 썬 것을 넣고 후후룩 끓이다가 계란을 풀어 넣고 마지막에 구운 김을 올려 식탁에 낸다.(오래 끓이면 배추가 풀러지니 살짝 끓여 내야 식감이 좋다.)
<당양떡의 열 두 달 살림법 저자> jazzchants@hanmail.net

“전체가구 10% 월 400만원 소비”

소득이 늘고 물가도 오른 탓에 한 달에 400만원 이상 소비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 선을 넘어섰다.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월 30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기준 전국(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명목 기준)을 분석했다니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소비 지출에 사용한 가구의 비중은 10.51%였다.

소비지출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쓴 비용을 뜻한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03년 2.45%였다. 이후 2004~2009년은 각각 3.39%, 4.60%, 4.99%, 6.03%, 6.86%, 7.86%

에 이어 작년 8.79%로 오른 뒤 올해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비중이 8년 만에 4.3배나 된 것이다.

월 소비지출액이 300만~400만원인 가구 비중도 2003년 5.29%에서 2009년 11.45%, 작년 13.82%, 올해 15.34%로 늘었다.

월 300만원 이상 소비지출을 하는 가구 비중은 작년 22.61%에서 올해 25.85%로 3.24%포인트 늘었다. 평균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월 300만원 이상을 소비에 지출한 셈이다.

월 소비지출액 5개 구간 가운데 중간인 200만~300만원은 작년 3분기 29.27%에서 올해 31.01%로 늘어 처음으로 30%선을 넘었다. /연합뉴스

증시 29일 폐장...배당락일은 28일

올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의 연말 폐장일은 오는 29일이라고 한국거래소가 14일 밝혔다. 30일은 휴장하며 내년 증시는 1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8일이다. 이들 기업의 배당을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과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코스피200 옵션 야간시장은 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열린 뒤 폐장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대우일렉, 세탁기 모터 12년 무상 보증

대우일렉트로닉스는 가전업체 최초로 세탁기 모터에 대해 종전보다 2년을 연장해 12년 무상 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2년 무상보증이 적용될 제품은 6

려면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과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코스피200 옵션 야간시장은 2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열린 뒤 폐장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개 모델로 드럼업 II와 15kg 드럼세탁기, 17kg 대용량 일반형 세탁기 등 스마트 드라이브(SD) 모터를 적용한 전 모델이다. SD 모터는 소음과 전기 소모량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내년 세수확보 '비상'

경기침체로 180조 난망...국세청 대책 고심

이헌동 국세청장이 경기침체에 따른 내년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돼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부기관과 민간연구소,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국별, 지방청별로 올해 체납 징수 등 징세를 꼼꼼히 마무리 하고 지금까지 내년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방침은 올해 세수가 예초 목표치인 175조원을 초과달성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국세청의 위기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예산안을 짤 때 4.5%로 잡았다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3.7%로 내렸다. 국내총생산이 1%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의 세수목표는 올해보다 늘

어난 180조원 가까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게 내부 중론이다.

불황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실적 악화와 소비 둔화로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들고 자영업자 등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내년 숨은 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반사회적 역의 탈세행위의 외국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변칙 상속·증여 행위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으로 모습과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노력해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 모습 새 각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실현해 가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순환대치를 이루는 두개의 조형이 모여 전체적으로 'Cross' 마크를 형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표현하였다.